

전북농기원, 태풍 콩레이 철저 대비 당부

발작물 조기 수확 배수로의 잡초 제거 논두렁 물꼬 만들기 등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부산앞바다를 지나 북도 근방으로 저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내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태풍 전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비가 예상되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벼는 현재 중만생종 대부분이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로 바람에 의한 쓰러짐, 침수, 이삭이 벼에 달린채 발아하는 수발아 현상 등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수확이 가능한 벼 포장은 즉시 수확해주고, 배수로의 잡초 제거, 논두렁 물꼬 등을 만들어 물빠짐을 좋게 해주어야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 침수된 논은 일 말관리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물을 빼주고 쓰러진 벼는 되도록 묶어 세워 수발아나 품질 저하를 예방해야 한다. 콩, 들깨 등 수확기에 접어든 발작물도 조기 수확해주는 것이 좋고 배

수로, 피복비닐 등을 점검하여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쓰러진 작물을 세워주고 뿌리가 심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흙을 덮어주어 피해를 줄여야 한다. 가을배추 등 김장채소는 비바람에 의해 노균병 등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태풍 전후 적용약제로 방제해주어야 한다. 과수류는 대부분 수확기에 있기 때문에 낙과, 가지 부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확기인 과실은 미리 따주고 바람에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유인하여 묶어주며 반채대 등을 이용해 늘어진 가지를 받쳐주어야 한다. 또한 과수원내 풀을 베고 배수로 정비하여 물빠짐이 좋도록 해주어

야 한다. 농업시설물의 경우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고정끈을 단단히 당겨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깊게 파고 하우스 내부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수확 직전단계에 있는 작물들이 많아 태풍의 간접영향으로도 많은 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태풍대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 정보 제공 및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태풍 대비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고용위기지원센터에서 실직(구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음 터놓을 곳 생겨 편안해졌다”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호응’

군산시고용위기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고용 불안정으로 실직자나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실직(구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센터 내 EAP(심층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찾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 9월말 현재까지 이용자는 158명이며 상담 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민 A씨는 “실직 후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는데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생겨 조금씩 안정되고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B씨는 “직장을 그만 두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며 지루하게 되었는데 함께

상담을 받은 뒤에는 위기일수록 관심과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남균 센터장은 “앞으로도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프 등을 계획해 시민들의 심리안정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해 368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한국지엠 관련 근로자 및 가족 중 심리상담 신청자에 한해 가정 방문 상담을 진행 중이다. 심층면담 결과 해당자에 한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실비(검사비 1회 30만원 상한) 및 치료비(월 10만원 상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마음건강클리닉(☎445-9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전국체전 대비 보건의료지원 준비 ‘총력’

익산시가 오는 12일 개막하는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의료지원반 운영 및 감염병 예방 활동, 건강홍보관 운영 등 보건의료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체전기간 동안 응급상황에 대비해 주 경기장에 의료지원반을 설치하고, 사전경기를 포함한 경기장 20개소에 의사 23명, 간호사(또는 응급구조사) 170명, 운전원 113명으로 구성된 120개 의료지원반을 편성해 파견할 계획이다. 선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소방서, 관내 의료기관 등과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또,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경기장별 의료지원도 추진한다. 익산시는 원광대학병원과 익산병원을 환자 후송 치료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개회식 및 폐회식 당일에는 주 경기장에 많은 인파가 몰려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원광대학병원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한다. 익산시는 지난 1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편성해 주경기장을 포함한 20개 경기장 및 주변에 대한 친환경 방역소독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 응급실중후군 감시를 엄격

히 하고, 익산시청 보건소와 위생과가 합동으로 수인성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식수관리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관내 의료기관 등 150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를 통해 집단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감염병 감시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는 체전기간 동안 선수 및 경기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건강홍보관을 운영해 심뇌혈관 예방관리, 음주 고갈 및 비만조기 착용, 체성분 측정 등 체험을 통한 건강관리법 제

시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및 사상체질 검사, 올바른 구강관리법, 치매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 아토피 예방관리법 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체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 개최지인 익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선수와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 하이주얼, 중국·한국 직원 상견례 가져

익산에 동지를 틈 패션주얼리업체(㈜하이주얼)가 지난 2일 익산시내에서 중국 직원과 신규 채용된 한국 직원이 상견례를 갖고 결속을 다졌다. 1996년 중국 청도로 이전한 (주)하이주얼은, 2017년 12월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9월 중순 채용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10명, 비장애인 20명 등 총 3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 전초기지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서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이날 중국 측 직원 9명과 한국 신규 채용직원 30명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하이주얼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미래 비전 등이 소개되었고, 참석자들은 직원에 대한 회사측의 배려에 감사하며 근무환경 및 여건, 회사의 발전가능성에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장인 (주)하이

주얼 대표 방상명 회장은 “타지 중국에서 다시 한국 익산으로 올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시장님과 시청 관계자,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익산에 대한 확신이 증명되지 않아 이전을 망설이는 중국 주변업체들이 익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한 팀이 되어 꼭 성공하여 롤모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주)하이주얼은 연간 1,600만불을 미국과 영국에 수출하는 해외진출 패션주얼리 업체로 오는 10월 중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선단지내 준공예정인 임대공장(1,196㎡)에 입주하여 본격적 생산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수협, 선유도위판장 개장 본격 돌입

고군산군도 지역 어업인들이 수산물 유통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수협(조합장 김광철)에 따르면 지난 2일 김경우 군산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및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유도위판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위판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된 선유도위판장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도비 40%, 시비30%, 지방30%)을 투자해 건립됐으며 활어 및 선어 위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유도위판장이 개장함에 따라 그동안 고군산지역에서 출하되던 꽃게, 꾸꾸미 등 수산물을 비응황위판장까지 이동하는데 따른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응도까지 이동거리가



멀어 그간 판매대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위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가유지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철 군산시수협 조합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유도위판장이 개장함으로써 어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어가소득증대는 물론 어촌계의 수산물식센터와 연계하여 어촌계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는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주민공모사업’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온라인(http://intra.gosi.ms.go.kr)을 통해 접수받는다. 4일 밝혔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재보선창 일원에 한 국선급, 수협창고 등 5대 도시재생 거점 개발과 연계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청년문화주택타운과 복합레저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쇠퇴한 중심가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일반공모, 기획공모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2,000만원 규모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1,000만원(본인부담 10% 이상)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공모는 도시재생 사업지에 거주하거나 소재지가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사업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획공모는 거주지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